

# 팀구성 두 달·2경기만에...94골 먹고 감격의 첫 득점



강팀 러시아 상대 12개 슈팅 경기 막판 4라운드 득점 성공 평영 출신 경다솔 골 주인공

## 한국여자수구팀 역사적 첫 골

18세 경다솔은 무려 12개나 슈팅을 퍼부어 러시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 헝가리전에서 슈팅 3개에 그친 것과는 사뭇 다른 공격 본능이었다. 여자수구 대표팀 경다솔(강원체고·3년)이 여자 수구대표팀이 고대하던 첫 골의 주인공이 됐다. 여자 수구대표팀은 16일 오전 8시30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2차에 선에서 0-24로 뒤지던 4라운드 경다솔(강원체고)이 러시아 오른쪽 측면에서 강한 왼손 슈팅을 날렸고, 러시아의 골망을 흔들었다. 구성된 지 두 달도 안된 초보 대표팀이 세계무대에서 기록한 첫 득점이다. 여자수구 대표팀은 앞서 헝가리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0-64로 대패했다. 세계의 높은

벽을 제대로 실감한 여자 수구 대표팀은 아직 기록하지 못한 세계무대 첫 골을 목표로 러시아전에 임했다.

러시아는 2016 리우올림픽과 2017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한 강호다. 이날 대표팀은 2라운드까지 0-16로 뒤지고 있었지만 상대의 압박 수비와 피지컬에 밀려 당황하던 헝가리전과 달리 몸싸움을 통해 공을 지켜내고 패스로 공격을 이어갔다. 2라운드 후반 슈팅이 상대 골대를 때려 첫 득점이 어렵게 무산되기도 했다. 그리고 첫골 기회는 경기 막바지에 찾아왔다. 4라운드 4분 16초 경다솔이 왼손으로 역사적인 첫 득점에 성공했다.

골을 넣은 경다솔은 대구출신으로 고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체계적인 운동을 위해 홀로 연고도 없는 강원체고로 전학을 갔다. 하지만 주종목인 평영에서 급격히 슬럼프가 찾아왔고 하라세를 이어갔다.

우연히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여자 수구 대표팀이 구성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종목을 변경했다. 왼손잡이인 경다솔은 야간 훈련을 병행하며 수구 기본기를 다졌다. 이날 경다솔은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12개의 슈팅을 날리며 골에 대한 의욕을 보였고 첫 골의 주인공이 됐다.

경기가 끝난 뒤 경다솔은 동료들부터 칭찬했다. 경다솔은 "아직도 열떨떨하다, 슈팅을 날렸지만 골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저희가 다시는 못 볼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자리니까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슈팅을 날렸다"면서 "역사적인 순간에 한 획을 긋게 해준 코치 선생님 언니 동생들 모든 분들께 고맙다. 목표인 첫 골을 넣었으니 다음 경기에서는 다른 선수들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여자부 조별리그 B조 2차전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에서 한국 경다솔이 첫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한국 첫 골 축하합니다"...남아공 출신 심판 열쇠고리 선물

"한국의 역사적인 첫 골을 축하합니다." 한국 수구여자대표팀의 첫 골을 기록한 경다솔이 경기 주심으로 부터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 16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러시아와의 예선 2차전을 마친 후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경다솔(강원체고 4년)은 한국 수구 역사에 길이 남을 첫 골 넣은 공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못내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다솔은 "그 공을 꼭 가지고 싶은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공에 이름이 적힌 것도 아닌데 누군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날 경기의 주심인 남아



한국 여자수구대표팀 첫골의 주인공인 경다솔과 윌리스 디온(남아공)심판이 서로 기념품을 교환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특별취재단=김현영 기자 young@

프리카 공화국 출신 윌리스 디온씨가 경다솔 옆으로 붙박 찾아왔다. 윌리스씨는 "한국의 첫 골을 축하한다"며 경다솔에게 감격인사를 건넸다. 인사가 끝이 아니었다. 윌리스씨는 "남아공 전통 비즈(Bead-구슬)공예품으로 남아공 사람들이 하나씩 만든 것"이라며 남아공 국기가 새겨진 열쇠고리를 경다솔에게 전달했다. 뜻밖의 선물에 감격한 경다솔은 윌리스씨와 감사의 포옹을 나눴고, 옆에 있던 대표팀 관계자를 통해서 태극기가 새겨진 양말을 건네받은 경다솔은 답례로 윌리스에게 선물을 건넸다. /특별취재단=김현영 기자 young@



16일 광주시 서구 영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 수영경기장에서 열린 아티스틱 수영 듀엣 프리 예선에서 한국의 백서연·구예모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아티스틱 듀엣 백서연·구예모 "최선 다해 후회 없다"

### 예선 33위로 결선 실패

대한민국 아티스틱 국가대표 백서연(20·건국대)과 구예모(19·마포스포츠클럽)가 관객들에게 수중 '미술'을 선보였다. 16일 광주시 서구 영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경기장에서 열린 듀엣 자유종목(프리 루틴) 예선 경기에서 경연에 참여한 듀엣 백서연, 구예모는 '아름다운 미술'이라는 주제로 연기를 펼쳤다. 프리 루틴 경기인 만큼 두 선수는 경쾌한 음악

에 맞춰 자신들이 준비한 연기를 마음껏 선보였다. 백서연, 구예모 듀엣은 수행점수 22.6점, 예술점수 30.1333점, 난이도 22.3점을 기록해 합계 75.0333점으로 전체 46개 참가팀 중 33위를 기록하며 상위 12팀에게 주어지는 결선 진출권 획득에는 실패했다. 경기를 마친 백서연은 "(구)예모와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와 서로 잘 통한다"며 "오늘 연기도 준비한 만큼 잘 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효미 대표팀 코

치는 "빠른 순번에 경기를 치르게 돼, 어린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하진 않을까 걱정됐지만 씩씩하게 연기를 잘 마쳤다"며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보니 선수들이 많은 종목에 출전하느라 체력적으로 지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듀엣 자유종목(프리 루틴) 예선에서는 러시아가 96.6667점으로 1위, 중국이 94.5333점으로 2위, 우크라이나가 93.1333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 이용섭 시장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아 달라"

### 남부대 확대간부회의서 당부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안전 대화'를 강조하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주 경기장인 남부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안전인데, 대회 뒷세제인 현재까지 사건·사고 없이 모든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회 조직위와 3000여 자원봉사자, 1만2000여 시민 서포터즈, 유관기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대회 성공개최의 가장 큰 적은 방심이다"며 "3000여 군·경·소방·의료요원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현장 위주의 안전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회 열기 조성과 '노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시장은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예제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함께 참여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행사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마다 관중들이 가득

매워 뜨거운 대회 열기를 조성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역대 최대인 194개국에서 가장 많은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입장권 판매는 목표액을 초과했지만, 경기장에 나오지 않는 '노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비인기 종목이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는 종목도 관람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관람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별취재단=최권일 기자 cki@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J2 5 point	5 7 6 2 1 4 3 0 2
J1 4 point	4 5 1 7 4 9 8 0 2
J1+ 3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